



삼국유사의 한문문체적 일 연구(I)

저자 (Authors)	이동근
출처 (Source)	우리말글 , 1998.11, 243-272(30 pages) URIMALGEUL : The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 1998.11, 243-272(30 pages)
발행처 (Publisher)	우리말글학회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0056167
APA Style	이동근 (1998). 삼국유사의 한문문체적 일 연구(I). 우리말글, 243-272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11/28 09:46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삼국유사>의 한문문체적 일 연구(Ⅰ)*

이 동 근

〈 목 차 〉

- | | |
|----------------------|-------------------------|
| 1. 서론 | 3. <삼국유사>와 한문문체 |
| 2. 한국한문 문체의 분류 | 3.1. <삼국유사>에 인용된 문체명 |
| 2.1. 文選類에 나타난 문체명 비교 | 3.2. <삼국유사>에 발견되는 한문 작품 |
| 2.2. 문체 분류안 批正 | 4. 결론 |

1. 서 론

<東文選>은 梁 昭明太子 蕭統(501~531)이 편찬한 중국의 <文選>을 모방하여, 徐居正이 왕명을 받아 1478년(성종 9년) 고구려 을지문덕에서부터 자신의 대까지 모든 문인·학자들의 문장을 총집대성한 본격적인 한국의 문체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까닭에 한국한문 문체에 대하여 논의할 때에 이제까지 이 문헌을 하나의 교범으로 생각해 왔다.

그런데 <동문선>(1518)의 편찬 배경을 논할 때 늘상 중국 <문선>의 영향만 언급하였지, <동문선> 이전에 이 땅에서 간행된 문선류(金台鉉의 <東國文鑑>, 崔滄의 <東人之文>, 조운홍의 <三韓詩龜鑑>, 金祉의 <選粹集>, 성삼문의 <東人文寶>¹⁾, 의종대 <風謠詩選> 등), 본격적인 역사서인 <삼국사

* 이 논문은 1998학년도 대구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음.

1) <동인문보>는 성삼문(1418~1456)이 역대 작가의 문장을 뽑은 선집이고, 이 미원의 선집을 바탕으로 1488년(성종 19년) 시대별·작가별로 정리한 책이 <동문수>다.

기>(1145년), 그리고 민족문화의 보고인 <삼국유사>(1280년대)와의 영향관계는 논의로 하였다.

이중 특히 <삼국유사> 기사는 출처와 양식면에서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출처면에서 기존 역사서, 각종 공식문서, 금석문, 사적인 기록, 구전설화, 개인의 의견 등이 그리고 양식면에서 시가류·송찬류·잡명류·논변류·주소류·서독류·전장류·비지류·서사류·잡기류 등이 총망라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은 일연이 직접 창작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 전하는 자료를 있는 그대로 인용했고, 혹 상이한 자료가 혼재할 경우 그 모든 것을 그대로 제시하여 독자의 판단에 맡기는 방법을 선택하기도 하였다. 이런 까닭에 <삼국유사>는 사실을 중시하고 유교사관에 입각하여 정통 역사서를 표방하고 있는 <삼국사기>에 비해 문학적으로 특히 한문문체적 측면에서 당시 한문학의 보급과 수준을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라고 아니할 수 없다.²⁾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삼국유사>를 연구할 때 설화와 향가에 대한 연구에 초점을 맞추어왔지, <삼국유사>의 한문문학성에 대해서는 贊에 대한 연구가³⁾ 고작이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점에서 필자는 <삼국유사>에는 어떠한 한문문체명이 인용되었고, 또 실제로 어떠한 한문문체가 발견되며, 그리고 그 중 한문학사에서 거론할 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작품이 얼마나 있는가를 살펴보아 <동문선> 이전 한국 한문학의 수준과 현황을 가늠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한국과 중국의 대표적 문선류에 어떠한 문체명(문체종)이 등장하는가를 살펴보고, 이를 몇 개 유형(문체류)으로 나누어 한문문체에 대한 체계적 인식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어서 이러한 문체명 중 <삼국유사>에는 어떤 문체명이 사용되고 있고, 실제로 발견되는 한문문장 중 문

2) <삼국유사>의 인용이 漢土의 문헌은 물론이고 국내의 고문적을 비교적 넓은 범위의 많은 종류를 들고 있고, 대개 일연 <삼국유사>는 述而不作으로 일관하였다. (최남선, 증보삼국유사, 민중서관, 1946, 14~20 passim)

3) 김주환, 삼국유사 소재 찬에 대하여(삼국유사연구 상,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1982.)

백신숙, 일연의 찬시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고운기, 삼국유사의 일연 찬시에 대한 연구,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학사에서 거론할 만한 작품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여기서 도출된 한문 작품이 가지고 있는 문학과 이들 작품의 한국 한문학사적 위상을 고를 달리하여 차후의 과제로 삼고자 하겠다.

2. 한국한문 문체의 분류

2.1. 문선류에 나타난 문체명 비교

이 땅의 초기 한문과 한문학의 경우 중국은 전신자, 한국은 수신자의 입장에 있어 온 까닭에 한문문체에 관한 한 일단 중국 쪽 문헌에 기대지 않을 수 없다.

<문선>은 양나라 소통(503~531)이 편찬한 본격적인 중국 시문선집인데, 이후 이것이 중국과 한국의 문선류 편찬에 절대적 영향을 미쳤다. 중국에서는 吳訥의 <文章辨體>에 영향을 주었고, 한국에서는 최치원(857~?)의 <계원필경>과 서거경의 <동문선>(1518)에 영향을 주었다. 또 <동문선>은 <속동문선>·<별본동문선> 편찬에 절대적인 기준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文體明辨>은 명대 徐師曾이 1554년~1570년에 걸쳐 오늘의 <문장변체> 참고하여 文章詩賦의 이론과 품격을 제시하고 143종의 문체를 수록한 시문집으로, 이후 문장작법과 문선류 편찬에 준거가 되었다.

<계원필경>은 최치원이 남긴 우리나라 최고의 개인문집이다. 이는 최치원이 건당 유학생으로 중국에 가서 문장수업을 한 후 高駢의 서장관으로 있다가 885년 귀국하여, 주로 당나라에 있을 때 지었던 작품을 간추려 정강황에게 바친 문집이었다고 볼 때, 당시 중국 시문선집의 전범이었던 소통의 <문선>을 당연히 참고했으리라 믿어진다.

<東文選>은 소통이 편찬한 <文選>을 모방하여, 천여년 뒤에 徐居正이 1478년(성종9년) 고구려 을지문덕에서부터 자신의 대에게까지의 모든 문인·학자들의 문장을 총집대성한 문체집, 즉 한국의 문선이라고 할 수 있다.

4 우리 말글 (제16집)

이후 申用漑가 정편 간행 이후 40여년간에 저술된 시문을 선별하여 1518년(중종 13년)에 <續 동문선>을 찬집하였고, 宋相琦가 청국에 동국시문을 보내기 위하여 당대까지의 시문을 가지고 다시 <別本 동문선>을 찬집하였다. 이들 3종의 동문선은 모두가 문체 중심으로 작품이 선별되었고, 열거된 문체도 대동소이한데, 속·별본은 단지 최근 작품을 추가하는 후속작업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문체의 종류와 작품의 수가 많지 못한 편이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여기서는 중국측 문선류인 <문선>과 <문체명변>, 한국측 문선류인 <계원필경>·<동문선>·<속동문선>·<별본동문선>에 수록된 문체명을 열거하여 상호 영향관계 및 변별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이들 문선류에 나오는 문체를 그 용도에 따라 공용문, 문예문, 실용문으로 삼분하고자 한다. 여기서 공용문은 군주의 통치 또는 공적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공식적인 문장을 가리키고, 문예문은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과 사상을 전달하는 문장을 가리키며, 실용문은 사회생활과 관련한 각종의식과 관련한 문장을 가리킨다. 위와 같은 점에서 역시 문예문 중에 문학성이 내재된 작품이 많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문선류에 나타나는 문체명>

구분	문체종	계원필경	동문선	속 동문선	별본 동문선	문선	문체명변
공용문(公)							
	1. 詔勅		조칙			조	詔, 勅, 諭告, 御札, 敕文, 鐵券文, 諭祭文, 國書, 命, 璽書
	2. 敎書 (敎旨)		교서			교	교
	3. 制誥		제고				제, 고
	4. 冊 (시책, 예책, 符命)		책	讖冊, 哀冊	책, 부명		책, 부
	5. 批答		비답				비답
	6. 策				책	책	책
	7. 令					영	영
	8. 奏		주의		주문	奏記	奏疏, 誓, 誓附, 判, 約
	9. 疏 소		소	소	소		
	10. 策間(策題)		책제				책문

구분	문체종	제원필경	등문선	속 등문선	별본 등문선	문선	문체명번
	11. 表	표	표	表		표	후표
	12. 檄(箋)		箋	箋		檄	箋
	13. 狀牒	장, 學牒	장, 첩				狀
		別紙, 委曲					
	14. 露布		노포				노포
	15. 笥子		차자		차, 차자		奏笥
	16. 封事				봉사		봉사
	17. 致語		치어				
	18. 啓	啓狀, 啓詩		계		계	계
	19. 檄書	격서	격서	격	격		격
	20. 上書					상서	상서
	21. 彈事					탄사	탄사
	22. 史論					사론	
	23. 史述贊					사술찬	
문여문(25)							
	24. 辭		사	사	사	사	사
	25. 賦		부	부	부	부	부
	26. 詩		시	시	시	시	歌, 謠, 謳, 詩, 謔
	27. 七					칠	칠
	28. 騷					소	
	29. 連株					연주	연주
	30. 箴		잠		잠	잠	잠, 規, 戒
	31. 銘		명	명	명	명	명
	32. 頌		송	송	송	송	송
	33. 贊		찬	찬	찬	찬	찬
	34. 文		문	문	문	문	문
		(哭, 驅, 命, 謝, 弔, 呪, 斥)					
	35. 書	서	서	서	書, 答, 與, 論	서, 移書	書, 書記
	(答, 與, 論)						
	36. 序		서	서	서	서	서, 소서
	(敍, 題, 題辭, 引)						
	37. 跋		발	발	발, 제후		題跋
	(後序, 題跋, 題後, 書後)						
	38. 說論						설론
	39. 論(解, 議)		론	론	론, 해, 疑 駁, 評	론	論, 釋, 議, 議, 義, 議, 判, 評
	40. 辨		변		변		변
	41. 說		설	설	설		설, 字說
	42. 原		원	원	원		

6 우리 말글 (제16집)

구분	문체종	계원필경	등문선	속 등문선	별본 등문선	문선	문체명변
43.	傳		전	전	전		전
44.	對, 對問		대		대	대문	
45.	記	기	기	기	기		기
46.	志		지		지		지
47.	錄			록			
48.	雜著(雜書, 雜體)		잡저	잡저	잡저(語錄)	잡	雜著, 紀事, 題名, 說書
실용문(10)							
49.	上樑文		상량문	상량문	상량문		
50.	祭文 (祝文)	제문	제문, 축문	제문	제문	제문	제문, 축문, 祝辭
51.	道場文		도량문				
52.	齋詞(청사)	제사	제사, 청사	청사			
53.	哀詞(哀辭)		哀詞		哀辭	예문	예사
54.	弔文					조문	조문
55.	諱		뢰			뢰	뢰
56.	行狀		행장	행장	행장	행장	행장, 述
57.	碑銘(碑)		비명	비명	비	비문	비문, 비음문
58.	墓誌(墓碑)		묘지(명)	묘지(명)	묘비명, 묘자, 묘표	묘지	묘지명, 묘비문, 묘갈문, 묘표
계	58	13	48	26	42	38	87

*<문체명변> 서에서 “今明辯百有一體”라고 하였으나, 등질성을 가지고 있는 문체를 종합해 보면 약 87개종으로 나타난다.

이상 제시한 문체에 대하여 문헌별로 설명을 보충하면 다음과 같다.
 <문선>은 육조시대 양 무제의 장자 소통이 엮은 시문집으로, 춘추시대 말부터 양나라까지 130인의 시·부·문장 그리고 실명씨의 고시·고약부가 실려 있다. 여기에는 詩賦騷七詔冊令教策表上書啓彈事牋奏記書移書檄雜對問設論辭序頌贊符命史論史述贊論連珠箴銘誄哀文碑文墓誌行狀·弔文·祭文 등 38종의 문체가 집대성 되어 있다.

<계원필경>은 최치원이 중국체류 중 지은 글을 모아서 발간한 것으로, <문선>의 영향을 받아 이루어진 한국 최고의 개인문집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13종의 문체만이 수록되어 있고, <문선>과 동일한 문체는 표·서·격서·제문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중국에서도 <문선>

이후 다양한 문체가 개발되어 사용되었고, 당시 신라에서도 필요에 따라 고유한 문체를 개발·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啓狀·啓詩는 중국의 계를 산문과 운문으로 구분하여 명명한 것으로 보이나, 別紙·委曲·舉牒·齋詞·疏 등은 중국 명대 <문체명변>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문체를 구사하였다고 볼 때 한국한문 문장의 독자성을 살펴 볼 수 있는 근거라고 생각된다.

<동문선>을 <문선>과 비교하여 볼 때 <동문선>에 敎書, 制誥, 批答, 狀, 露布, 笏子, 致語, 牒, 策題, 疏, 記, 說, 傳, 跋, 辨, 對, 志, 原, 上樞文, 祝文, 道場文, 齋詞, 青詞 등 22개의 다른 문체가, <문선>에는 令敎, 上書, 彈事, 牋, 符命, 七, 騷, 連珠, 設論, 對問, 弔文, 史論, 史述贊 등 13개 다른 문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문선>과 <동문선> 편찬의 시간적 격차가 950여년에 이르고 있지만, <동문선>에 포함된 문체가 48종으로 <문선>보다 10종이 많고, <동문선>에만 있는 문체가 22개 중에 이르고 있다는 점에서 <동문선>의 지주성을 엿볼 수 있다.

<동문선>을 <문체명변>과 비교해 볼 때 <동문선>에 笏子, 致語, 策題, 疏, 雜著, 道場文, 齋詞, 青詞 등 8개의 다른 문체가, <문체명변>에 ①諭告, 御札, 敎文, 鐵券文, 諭祭文, 國書, 策(策文), 令, 符(符命), ②上書, 誓, 盟, ③判, 書記, 約, 紀事, 題名, 字說, 述, 問對, ④諺, ⑤歌, 謠, 謳, 誦, 七, 連珠, ⑥解, 釋, 論議, 義, 議, 說書, 規, 評, ⑦引, ⑧弔文, 致辭, 祝辭 등 38개의 다른 문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동문선>과 <문체명변>이 한국과 중국에서 거의 같은 시기에 편찬되었고, 전자에는 48개의 문체가 후자에는 87개의 문체가 망라되어 있다는 점에서 편찬 당시 한문학 성황을 엿볼 수 있으며, 특히 중국에서는 문체의 분화가 폭넓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문체명변>은 당시 한문학에서 논의될 수 있는 문체를 모두 망라해 놓았는데, ①은 조령류, ②는 주소류, ③은 잡기류, ④는 사부류, ⑤는 시가류, ⑥은 논변류, ⑦은 서발류, ⑧은 애제류의 하위 장르라고 볼 때 <문체명변>은 유사 문체를 지나치게 세분화하여 문체 구분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동문선>을 <속 동문선>·<별본 동문선>과 비교해 볼 때, 문체 수에서 보면 48·26·42개로 <동문선>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속 동문선>에는 錄이란 문체가 새로 보이고, <별본 동문선>에는 封事라는 문체가 새로 보이며, 書類는 書·答·與·論이란 문체로, 雜著類는 駁·評·語錄·疑 등의 문체로, 그리고 碑銘類는 碑·墓碑銘·墓表 등의 문체로 다양하게 분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복은 다른 문선류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필요시 문체명을 독자적으로 만들어 사용했으며, 동류에 속하는 작품이라도 그 문장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분리시켜 적절한 명칭을 붙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어서 모든 문체를 문체종에 분속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해의 편의상 기존 문체론을 참조하여⁴⁾ 58개 문체종을 다시 문체류로 분류하여 그 장르적 특징을 간단히 언급해 보고자 한다.

2.2. 문체 분류안 비정

문선류에 나타나는 문체가 58종 87개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부 문체들은 문체명만 다를 뿐 상호 변별성이 없는 것도 더러 있어, 이들을 중분류(문체류)할 필요가 있다.

한문문체의 중분류에 대하여는 姚鉉의 <당문수>, 姚卨의 <고문사류찬>, 曾國藩(1811~1872)의 <경사백가잡초> 등이 참고가 될 만하나, 특히 요내(968~1020)의 <古文辭類纂>의 분류가 한문문체를 연구하는 선학들 연구에 많이 참조되었던 것 같다. 그의 분류는 논변류, 잠명류, 송찬류, 사부류, 서발류, 贈序類, 조령류, 주의류, 書說類, 애제류, 전장류, 비지류, 잡기류 이상 13류로 되어 있다.

문체의 분류는 분류자의 안목에 따라 각기 다양한 분류안이 제시될 수 있는데, 필자는 요내의 13 분류안을 참고로 하고 여기에서 한국한문 문체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산문·운문으로 2분하고, 이를 다시 산문 9개종·운

4) 이종건·이복규, 한국한문학개론, 보진재, 1991.

박성규, 문체(장르)용어의 개념(정요일 외, 고전비평용어연구, 태학사, 1998.)

문 5개종, 도합 14개 문체류로 분류해 보고자 한다.

먼저 14개 문체류에 포함시킬 수 있는 중국과 한국의 문체를 총망라해 본 다음, 유희(466?~520?)의 <문심조룡>, 소통(501~553)의 <문선>, 이규보(1168~1241)의 <동국이상국집>, 이색(1328~1396)의 <목은시문고>, 서거정(1420~1488)의 <동문선> 등에는 어떠한 문체를 포함시키고 있는가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 한문 문체의 분류>

문체류	이 칭	하위장르
산문		
1. 論辨類		論, 辨, 說, 議, 解, 難, 釋, 原, 喻, 對問, 史論, 說論, 疑, 問答, 文, 判 ◦ 論, 辨, 說, 原, 議, 對, 文(동문선) ◦ 설, 변, 문답(목은시문고) ◦ 설(동국이상국집) ◦ 論, 難, 對問, 說論, 史論(문선) ◦ 판, 른(문심조룡)
2. 奏疏類 : 奏議類(최신호)		奏, 奏議, 疏, 上疏, 章, 表, 表箋, 上表, 上書, 議, 筭, 筭子, 榜子, 策, 策文, 對策, 牋, 啓, 狀, 封事, 露布, 彈事, 奏記, 貼, 乞表, 乞書, 致語, 牒, 榜文 ◦ 奏議, 表箋, 狀, 致語, 牒(동문선) ◦ 表, 牋, 乞書(목은시문고) ◦ 榜文, 狀, 表, 牋(동국이상국집) ◦ 奏記, 上書, 榜(장계), 탄사(문선) ◦ 表, 狀, 疏(문심조룡)
3. 詔令類		詔, 조칙, 命, 詔, 판고, 誓, 制, 제고, 命, 부명, 勅, 諭, 冊, 敕, 교서, 책, 檄, 聖書, 御札, 敕文, 策問, 策題, 批答, 判 ◦ 조칙, 교서, 제고, 冊, 批답, 策題(동문선) ◦ 교서(목은시문고) ◦ 교서, 批답, 조서, 官詔(동국이상국집), ◦ 冊, 敕, 策, 詔, 命, 符命(문선) ◦ 제, 칙, 조, 책(문심조룡)

10 우리 말글 (제16집)

문체류	이 칭	하위장르
4. 書牘類	書說類(姚鼎)	書, 牘, 簡, 札, 帖, 啓, 移書, 移文, 檄, 격서, 牒, 露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書, 노포, 격서, 牒, 계(동문선), ○ 書(목은시문고) ○ 書(동국이상국집) ○ 격, 계, 서, 移書(문선) ○ 書, 啓, 檄, 露布(문심조룡)
5. 序跋類	題跋類(이종찬), 서발류+贈序類(최신희), 贈序類(요내, 이가원)	序, 叙, 後序, 叙錄, 跋, 書跋, 題, 題辭, 題後, 書後, 小序, 例言, 送序, 贈序, 引, 壽序, 賀序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序, 跋(동문선) ○ 序, 서후, 제후, 발, 계(목은시문고) ○ 序(동국이상국집) ○ 序(문선) ○ 序(문심조룡)
6. 傳狀類		傳, 史傳, 家傳, 別傳, 外傳, 小傳, 史略, 內傳, 補傳, 世家, 實錄, 연대기(연보, 세보), 諡狀, 家狀, 행장(행록, 행술, 事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행장(동문선) ○ 전(동국이상국집) ○ 행장(문선)
7. 碑誌類	비갈류(이종건)	碑文, 墓碑, 神道碑, 神道表, 墓表, 墓誌, 靈表, 墓碣, 橫誌, 阡表, 부도명, 탐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명, 묘지(동문선) ○ 비명, 부도명, 탐명, 신도비명, 묘지명, 묘표(목은시문고) ○ 비명(묘지동국이상국집) ○ 비문, 묘지(문선) ○ 비지(문심조룡)
8. 雜記類	서기류(이종찬, 이종건)	記, 紀事, 遊記, 書記, 圖記, 志, 誌, 述, 錄, 일기, 書事, 實記, 어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 잡저(동문선) ○ 기, 墳墓記(목은시문고) ○ 잡저, 잡문, 기, 어록(동국이상국집) ○ 기, 잡문(문선)
9. 敘事類	소설류(최신희, 이종건, 이가원), 필기류(민병수)	신화, 전설, 민담, 소설, 야사, 유사, 패사, 야담, 패설, 한문단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談, 諧(문심조룡)

문체류	의칭	특징장르
은문		
10. 哀祭類		告天文, 告地文, 告廟文, 玉牒文, 祭文, 哀詞, 弔文, 祝辭 談, 釋奠, 釋奠文, 祈, 盟文, 誓文, 齋詞, 青詞, 上樑文, 축문, 축사, 판사, 도량문, 疏, 초소 ○ 뇌, 哀詞, 哀辭, 도량문, 상량문, 제사, 계든, 청사, 축문, 소(동문선) ○ 계문(목은시문고) ○ 상량문, 회서, 예사, 계문, 醴疏, 祝(동국이상국집) ○ 뇌, 예문, 계문, 조문(문선) ○ 제, 회(문선)
11. 喪銘類		蔑 銘, 戒 訓, 規 誨, 誥 ○ 蔑 銘(동문선, 문선) ○ 잠(목은시문고) ○ 명(동국이상국집) ○ 잠(문선) ○ 잠, 명(문선조용)
12. 頌讚類		송, 찬, 사술찬 ○ 頌, 讚(동문선, 문선조용) ○ 송, 찬(목은시문고, 동국이상국집) ○ 송, 찬, 사술찬(문선)
13. 諷諭類(이가원, 시분취조소표)		고서, 사중, 학부, 절구, 을시, 배물, 한문번역가요 ○ 고체시(시경, 고서), 근체시(절구, 을시, 배물)(동문선) ○ 시(목은시문고) ○ 을시(동국이상국집) ○ 시(문선)
13. 1. 시류		○ 학부, 漢文 聯 聯 聯 聯(동문선)
13. 2. 가류		○ 학부, 漢文 聯 聯 聯 聯(동문선)
14. 辭賦類(이가원)		辭 賦, 題 七, 連珠, 偶 ○ 辭, 賦(동문선) ○ 辭, 賦, 操(목은시문고) ○ 賦(동국이상국집) ○ 辭, 賦, 題, 七, 連珠, 偶(문선) ○ 賦, 題(문선조용)

위의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산문은 논변·주소·조령·서독·서발·전장·비지·잡기·소설류로 9분하고, 운문은 애계·잡명·송찬·시가·사부로 5분하여 개관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논변은 사물의 어치를 궁구하여 올바름을 주장하는 문장인데, 여기에는 論·辯·說·議·原·解·說論·史論·對가 있다. 논은 경에 들어 있는 이치를 논술한 글이고, 변은 언행의 진위를 논단하는 글이고, 설은 의리를 해석하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글이고, 의는 당면문제에 대하여 정도와 진리에 입각하여 분석하고 해명하는 글이고, 원은 사물의 근본을 추구한 글이고, 해는 의혹이나 의심을 풀어헤친 글이고, 대는 문답형식의 글이고, 사론은 역사적 기술 뒤에 붙이는 찬자의 논평부분의 글이다.

주소는 신하가 왕 또는 상관에게 올린 문장으로 처음에는 모두 上書라고 하다가, 章·奏·疏·表·議·牋(箋)·狀·露布·劄子·封事·啓·彈事·策文·致語 등의 문체로 분화되었다. 장은 군은에 감사는 글이고, 주는 서비를 따져서 시정을 촉구하는 글이고, 소는 시비곡직을 가려 진실이 통하도록 하는 글이고, 표는 단서를 명백히 하여 윗 사람에게 고한 글이고, 의는 이의신청의 글이고, 牋(箋)은 일의 순서를 밝혀 군주(황후나 태자)를 깨우치는 글이고, 장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자신의 의견을 전하는 글이고, 노포는 군영에서 전승을 알리는 글이고, 劄子는 상소 문을 말하고, 封事는 밀봉하여 왕에게 바치는 글이고, 계는 윗 사람에게 보낸 축하·사례·진정의 뜻을 담은 글이고, 탄사는 죄인을 규탄하는 글이고, 책문은 科試에서 古事·時務에 대한 질문에 의견을 개진한 문장이어서 일명 試策이라고 하고, 치어는 궁중 연회에서 임금에게 바치는 글이다.

조령은 군주가 신하에게 내리는 문장으로 처음에는 모두 령이라 하다가, 詔·教·策問·冊·令·制·勅·批答·命·誓·誥·策書·制書·詔書·戒飭·飭·諭·檄 등의 문체로 분화되었다. 조는 천자가 아랫 사람을 깨우치는 글이고, 教書·教旨는 제후국의 왕이 아랫 사람을 깨우치는 글이고, 策問(策題)은 정치적 쟁점이나 시류에 관한 질문의 글이고, 冊은 符命 즉 제후·왕·삼공에게 내린 명령서이고, 制는 관리 임명과 해직의 글이고, 牒은

임명장을 말하고, 勅은 신하들에게 경계와 戒飭을 전하는 글이고, 비답은 신하가 올린 주소에 대한 왕의 해답문이고, 命은 관직수여나 임명에 관한 글이고, 牒는 군대에 대한 훈령이고, 誥는 정치에 관한 진술이고, 策書는 諸王 임명의 글이고, 制書는 사은 시행의 글이고, 詔書는 포고문이고, 戒飭은 지방기관 하달문이고, 飭·諭는 신하에 대한 훈계의 글이고, 檄은 전쟁 포고문이다.

서독은 개인적으로 주고 받은 편지를 가르키는데, 일반적으로 擘라고 하다가 군주에게 올리는 表·奏, 재상에게 올리는 記, 지방장관에게 올리는 牋, 그리고 啓·檄書·移文·謀·露布·委曲·別紙 등으로 분화되었다. 여기서는 공무와 관련한 편지는 주소류에, 사적인 편지는 서독류에 포함시켰다. 啓는 윗 사람에게 축하·사례·진정의 뜻을 담아 보낸 글이고, 檄書는 투항권유나 전쟁독려의 글이고, 移文은 여러 사람이 돌려보도록 쓴 글이고, 謀는 관직의 임명을 알리는 글이고, 露布는 승전포고문이다.

서발은 문집의 앞뒤에 저술경위·내용·체제에 대하여 논한 문장인데, 여기에는 ①序·敍·題·題辭·引, ②後序·跋·題跋·題後·書後, ③贈序·送序, 贈序, 壽序, 賀序 등의 문체가 있다. ①은 앞에 붙인 글을 말하고, ②는 뒤에 붙인 글을 가리키며, ③은 석별의 정이나 축하의 뜻을 나타낸 여러 사람의 글을 묶을 때 작품집 앞에 써준 글을 가리킨다. 제발(제후)는 뒤에 붙인 글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옛 일을 미루어 오늘의 일을 바로잡는 글을 지칭하기도 한다.

碑誌는 기록으로 남기거나 사자의 공덕을 기리는 문장인데, 여기에는 碑(銘)·墓誌(銘)·墓碑(銘)·墓碣(銘)·墓表(銘) 등의 문체가 있다. 비란 금속·목재·석재 등에 남긴 글이고, 묘지는 사자의 행적을 적어 무덤 안에 묻은 글이고, 묘비는 사자의 행적을 적어 무덤 앞에 세운 비석의 글이고, 묘갈은 5품 이하 관직자가 사용하였던 상단부가 둥근 모양의 비석을 말하고, 묘표는 관직의 고하·유무에 구애됨이 없이 쓸 수 있었던 문체로 되어 있는 묘비를 가리키며, 이상 모든 문장에 운문으로 된 銘이 첨부되면 명자를 붙인다.

14 우리말글(제16집)

전장은 개인의 일대기를 적은 문장인데, 여기에는 전과 행장 등의 문체가 있다. 전은 특이한 행적을 보인 인물의 행적이고, 행장은 후손에게 선조의 역사를 알려주기 위하여 사자의 행적을 사실대로 기술한 충실한 일대기이다.

잡기는 형식과 소재의 제한이 없이 자유롭게 쓴 紀事文으로, 여기에는 記·說·志·述·錄 등의 문체가 있다. 기는 사물의 본질과 현상에 대한 관찰기이고, 지는 야사의 자료로 심을 수 있도록 서술대상의 숨은 사실과 경험 등을 기록한 글이고, 록은 여행의 도정을 자세하게 기술한 견문기이다.

서사는 타 문체에 비하여 허구성이 많이 개입된 문장인데, 그 허구성 때문에 한문 문체로 대접을 받아오지 못하였다. 그러나 여기에는 문학성을 띤 작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문학을 논하면서 빼놓을 수가 없어 궁여지책으로 후대인들이 만든 문체명이라고 할 수 있다.

사부는 초나라 굴원에 의해 처음 지어진 離騷類와 宋玉 이후의 서사적 운문을 가리키고, 이외에도 問對의 체를 보이는 七과 辭句를 對比連續시켜 諷諭을 드러내는 連珠를 포함시킨다.

시가는 시와 악부를 총괄하는 명칭이다.

송찬은 공덕을 칭송·찬양하는 문장인데, 이를 송·찬으로 나누기도 한다. 송이란 왕의 성덕이나 성공을 종묘에 아르고 신명에게 고하는 글이고, 찬은 아름답고 착한 것을 찬양하는 글로서 哀贊과 史贊으로 나누기도 한다. 이들은 대체로 4언구를 기본으로 隔句換韻한다.

잠명은 교훈과 경계의 뜻을 담은 문장인데, 이를 잠·명으로 나누기도 한다. 잠은 경계의 글로 타인 경계의 官箴과 자신 경계의 私箴으로 나누기도 하고, 명은 공적을 새긴 글을 가리킨다. 이들도 대체로 4언구를 기본으로 격구환운한다.

애제는 애도와 더불어 사자의 덕을 기리는 문장인데, 여기에는 哀詞·耒·祭文·祝文·弔文·齋詞·靑詞·上樑文, 道場文 등의 문체가 있다. 애사는 요절한 자를 슬퍼하는 글이고, 퇴는 시호의 근거가 되는 글이고, 제문은

사람에게 제사를 드릴 때 올리는 글이고, 축문은 천지신명에게 제사하고 기원하는 의식문이고, 조문은 불운하게 죽은 사람·절개를 지키고 죽은 사람·뜻을 펴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을 추모하고 위로하는 글이고, 제사는 도교에서 천신이나 일월성신 등 자연신에게 고하는 축문으로 청사는 종이 가 푸른 색이어서 붙인 이름에 불과하고, 상량문은 건축시 대들보를 올릴 때 신명에게 고하는 글이고, 도량문은 불사를 이루고 극락왕생이나 성불을 축원하는 글이다.

위에서 보다시피 같은 명칭이 여러 문체종에 분류된 동명이체(說·議·表·奏·記·牋·引, 誥, 令, 啓, 檄), 다른 문체명에 포함이 가능한 경우(봉사, 노포, 계), 같은 문체류를 다시 세분한 경우(서발류, 시가류, 잠명류), 논자에 따라 각기 다른 문체명을 사용한 경우(제발류, 서기류, 소설류) 등이 발견되는데, 이에 대하여 부연·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논변류 「의」와 주소류 「의」 : 논변류의 「의」는 정도를 들어 아치와 도리를 밝히는 글인데 반하여, 주소류의 「의」는 이의를 신청한 문장이다.

2) 조령류 「고」·「령」와 잠명류 「고」·「령」 : 조령류의 「고」는 신하가 군주에게 올린 글로서 夏·殷·周 3대에 사용되었고, 「령」도 황제의 명령으로 쓰였으나 한나라 이후 황후나 세자의 명령을 모두 「령」이라 하였다. 잠명류의 「고」와 「령」은 교훈과 훈계의 뜻을 가지고 있다.

3) 주소류의 「계」와 서독류의 「계」 : 주소류의 「계」는 신하가 자신의 의견을 왕에게 개진한 문장을 말하고, 서독류의 「계」는 축하·사례·진정할 일이 있을 때 윗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를 말한다.

4) 조령류의 「격」과 서독류의 「격」 : 조령류의 「격」은 전쟁 때 군사와 민간인들에게 전의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왕이 내리는 글인데 반하여, 서독류의 「격」은 진중에서 천명과 시운을 들어 적장에게 투항을 권유하는 서간문이라고 할 수 있다.

5) 주소류의 「노포」와 서독류의 「노포」 : 주소류의 「노포」는 봉하지 않은 상소문을 가리키나, 조령류의 「노포」는 전공을 천하에 알리기 위하여 布帛에 써서 竹竿에 단 문장을 의미한다.

6) 「격」·「계」·「상서」·「봉사」·「노포」: 「격」은 포고문, 「계」는 의견진의 글, 「상서」는 임금에게 올리는 글, 「봉사」는 주머니에 넣어 봉한 상서, 「노포」는 봉하지 않은 상서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들을 편지라는 점에서 서독류에 넣을 수도 있다. 「상서」·「봉사」·「노포」, 「격」은 문장에 따라 왕의 통치행위와 관련될 때는 주소류와 조령류에 포함시키고, 사적인 경우는 서독류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어서 문체류에 재가의 견해를 비정하면 다음과 같다.

최신호는 서발류를 序跋類(序,叙,後序,叙錄,跋,書跋,題,題辭,題後,書後,引,小序,例言)와 贈序類(送序,贈序,引,壽序)로 나누었고, 서사류를 小說類로 명명했으며, 송찬류를 잠명류(箴,銘,戒,訓,規,令,誥,頌,贊)에 포함시켰다.⁵⁾

그러나 문집 서두와 후미에 쓴 글을 지칭하는 서발류와 떠나는 사람에게 준 증서류를 구분하였지만 양자는 차이점보다 공통점이 많다고 생각되므로 서발류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서사류를 소설류라고 하였는데 여기에는 소설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기에 설화·소설·야담·한문단편 등을 포괄하는 서사류로 명명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그리고 잠명류에 송찬류를 포함시키고자 하였는데, 훈계의 잠명류와 공적 치하의 송찬류는 형식상 동질성을 보이지만, 내용상 분명히 구분되므로 양자를 분리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된다.

이종찬은 시부류를 설정하지 않고, 詩經·辭賦·樂府·古詩·近體詩·詞로 독립시켰으며, 서발류를 재발류로 잡기류를 서기류로 명명하였다.⁶⁾ 그러나 이는 시부류에 대칭되는 문체와 격이 맞지 않고, 서문과 발문을 총괄하는 용어로 서발류로 쓰는 것이 좋을 것 같고, “記, 紀事, 遊記, 畫記, 圖記, 志, 誌, 述, 錄” 등을 총괄하는 용어로 서기류보다는 잡기류가 더 타당하리라 생각된다.

이종건은 올문을 시·사부·잠명·송찬·이체류로 5분하고, 산문을 논·변·서·가·조령·주소·서독·비갈·소설·비평으로 8분하였다. 그리고 잡기류를 서기류로,

5) 최신호, 한문강화, 현암사, 1977.

6) 이종찬, 한문학개설, 이우출판사, 1989.

비지류를 비갈류로, 서사류를 소설류로 칭하고, 비평류를 독립시켰다.⁷⁾ 그러나 초기에 사각의 비를 묘비, 둥근 모양의 비를 묘갈이라고 했으니 이 구분이 모호해졌고, 비갈에는 擴誌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비지류가 더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비평류의 문체가 독립적으로 있었던 것은 아니고, 서발류와 논변류에 비평문이 포함되므로 이를 독립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또한 송찬류에 포함시킨 부명은 조령류의 성격이 강하고, 애제류에 포함시킨 소의 일부와 주소류에 포함시킨 문은 논변류·잡기류에 해당하며, 서발·잡기·전장 등 이질적 문장을 합쳐서 序記類로 명명할 수 있는가가 의문이며, 일기와 기행문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잡기류가 타당하며, 소설이 서사문학을 총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서사류라고 칭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이어서 <삼국유사> 기록에 어떤 문체명이 인용되고, 실제로 어떤 문체의 작품이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3. <삼국유사>와 한문문체

3.1. <삼국유사>에 인용된 문체명

문체류	문체명	출처
삼문		
1. 논변류(4)		
	- 安身事心論, 초장관심론	권5 朗智乘雲
	- 心源章	
	- 史論	권2 후백제
2 주소류(12)		
	- 致書	권2 문호왕 벌민
	- 康州界任道大監柱貼(첩)	권3 백암사석탑사리

7) 이종건·이복규, 한국한문학개론, 보진재, 1991.

18 우리 말 글 (제16집)

문재류	문체명	출처
	- 晉陽府奏	권3 전후소장사리
	- 萬魚寺棟樑寶林奏	권3 魚山佛影
	- 叢林寺住持覺猷奏	권3 洛山二大聖 노닐부득 달달박박
	- 牋文, 表文, 狀啓	권4 원광서학
	- 搜玄疏	권4 의사전교
	- 晉陽府貼	권4 寶壤梨木
	- 柱貼公文	권4 寶壤梨木
	- 瑛白寺柱貼	권5 明朗神印
3. 조령류(1)	- 冊尙父誥	
4. 서독류(4)	- 賢首奉義湘書	권4 의상전교
	- 湘仍寄書	권4 승전축투
	- 寄太祖書, 太祖答	권2 후백제 견훤
5. 서발류(1)	- 跋	권3 전후소장사리
6. 전장류		
6.1. 승전		
6.1.1. 집전(21)	- 高僧傳	권3 阿道基羅, 권3 魚山佛影, 권5 信忠掛冠
	- 구법고승전	권4 歸竺諸師
	- 僧傳	권3 순도조려, 난타벽계, 원종홍법 염촉법신, 보장부 로 보덕이암, 高麗 靈塔寺, 권5 명량신인, 郁面婢念佛 西昇, 緣會逃名
	- 海東僧傳	권4 원광서학, 보양이목, 권5 광덕엄장
	- 三和尙傳	권5 신충괘관
	- 唐승전	惠現求靜, 권3 臺山 五萬眞神
	- 唐續고승전	권4 원광서학
	- 당전	권4 원광서학
	- 梁唐二僧傳	
6.1.2. 개별전(16)	- 元魏釋曇始傳	
	- 珠琳傳(法苑주립)	

문체류	문체명	출처
	- 圓光師傳	권4 원광서학
	- 釋寶孺傳, 備虛傳, 원광전	권4 보양이득
	- 慈藏傳	권3 가섭불연좌석
	- 義湘本傳	권3 낙산사 이대성
	- 의상전	권3 전후소장사리
	- 覺日本傳, 普德傳, 보덕본전, 朴直本傳	
	- 良志法師傳, 良志傳	권3 靈妙寺 丈六
	- 원효본전	권3 광덕엄장
6.2. 권傳(5)		
	- 조신전	권3 낙산이대성 관음 정취 조신
	- 고분 수어전	권4 원광서학
	- 김현감호	권5 김현감호
	- 諸家傳記	권3 가섭불연좌석
	- 別傳	권3 백윤사, 권3 대산 오만진신
6.3. 列傳(6)		
	- 唐裴矩傳	권1 고조선
	- 삼국사 열전	권4 원광서학
	- 문무왕전	권5 명랑신인
	- 史傳	권3 기록선화
	- 전한 조선전	권1 위만조선
	- 涇州五臺山實叱徒太子傳記	권3 涇州五臺山實叱徒太子傳記
6.4. 행장(3)		
	- 鏡師行狀	
	- 행장	권4 보양이득
	- 大僧國所實錄	권4 승전록투
7. 비지류(5)		
	- 我道本碑	권3 아도기라
	- 아도비	권3 원종홍법
	- 浮石本碑	
	- 三郎寺碑	권5 懷興遇聖
	- 有德寺碑	
8. 잡기문		

문체류	문체명	출처	
8.1. 역사기술(40)			
권1 고조선,	- 古記	권3 대산 오만진신, 권3 전후소장사리, 권3 어산불영, 권1 북부여, 권1 태종춘추공	
	- 高麗古記	권3 보장봉로 보덕이암	
	- 신라고기	권1 태종춘추공	
	- 백제고기	권1 태종춘추공	
	- 古傳	권4 보양이목, 원효불기	
	- 신라고기	권1 태종춘추공	
	- 鄉中古傳	권5 옥면비 엄불서승	
	- 古傳記		
	- 신라고전	권3 삼소관음	
	- 신라이전	권3 보양이목	
	- 鄉記		
	- 鄉傳	권3 남백월 이성, 권4 자장정를	
	- 俗傳	권3 천통사	
	- 諺傳	권3 무장사, 권5 명랑신인	
	- 唐傳	권4 자장정를	
	- 李暉家記		
	- 檀君記		
	- 가락국기, 가락기	권2 가락국기	
	- 本國 本記, 本記	권2 남부여	
	- 삼국사본전	권2 후백제 건원	
	- 신라본기	권3 阿道基羅, 原宗興法	
	- 고려본기	권3 順道肇麗, 寶藏奉老 普德移庵	
	- 백제본기	권3 難陀關濟	
	- 신라별기	권1 태종 춘추공	
	- 東明記	권1 髣髴	
	- 古本, 一本, 或本, 別本	권2 문호왕 법민	
	- 別記	권4 승전축루	
	- 日本帝記	권1 연오랑세오녀, 권2 元聖大王	
	8.2. 기(16)		
		- 關東楓岳鉢淵叢石記	권4 關東楓岳鉢淵叢石記
		- 五臺山文殊寺石塔記	권3 五臺山文殊寺石塔記

문체류	문체명	출처
	- 古傳講寺納田記	권1 伊西國
	- 海東安弘記	권1 마한
	- 東都成立記	권3 황룡사구층탑
	- 白月山兩聖成道記	권3 남백월이상 노할부득 달달박박
	- 西域記	
	- 神誌秘詞	
	- 金堂主彌勒尊像火光後記	권2 남부여
	- 彌陀佛火光後記	권2 남부여
	- 鐘洞記	
	- 教分記 玄義章 探玄記	권4 勝詮闡微
	- 法現西域傳(불국기)	권3 어산불영
	- 星字函西凌記	권3 어산불영
8.3. (寺)誌(14)		
	- 寺記東泉寺	권3 黃龍寺 9층탑
	- 寺中記感恩寺	권3 黃龍寺 9층탑
	- 寺中古記 황룡사	권3 靈鷲寺
	- 寺中所傳古記	권3 巖山 月精寺오류성증
	- 寺中有記 불국사	
	- 本寺記(金光寺)=금광사본기	권5 명랑신인
	- 山中古傳	권3 대산 오만진신
	- 영취사기	권5 남지승운
	- 地理志	권1 殊屬, 권3 洛山寺 二大聖
	- 백제 지리지	권2 남부여
8.4. 문(2)		
	- 闍香壇禮佛結社文	권3 原宗 興法
	- 資福寺雜帳文	권2 남부여
8.5. 록(3)		
	- 三寶感通錄	권3 요동성 아욱왕탑
	- 王代宗錄	권4 心志繼祖
	- 록	권5 포산이성
8.6. 일기(1)		
	- 紫門日記	권3 前後所釋舍利

22 우리 말글 (제16집)

문체류	문체명	출처
9. 서사류(생략)		
운문		
10. 애제류(0)		
11. 장명류(1)	- 명	권2 가락국기
12. 송찬류		
12.1. 송류(1)	- 태평송	권1 진덕왕
12.2. 찬류(2)	- 가락기찬 - 진찬	권1 오가야 권3 전후소장사리
13. 시가류		
13.1. 시류(7)	- 曹溪無衣子詩 - 漢南管記彭祖遜詩 - 憤怨詩 - 偈 - 元曉偈 - 佑世僧統詩 - 高得相詠史詩	권3 전후소장사리 권3 전후소장사리 권2 진성여대왕 거타지 권3 남백월이성 노힐부득 달달박박
13.2. 가류(11)	- 구지가 - 해가사 - 玄琴抱曲, 大道曲, 問群曲 - 亡國哀歌 - 歷代歌, 太平歌, 鸚鵡歌, 三歌, 神會作歌	권2 가락국기 권2 수로부인 경문대왕 金傅大王
14. 사부류(0)		

이상에서 보다시피 애제류·사부류를 제외한 론, 장, 사론, 致書, 주침, 주, 牋文, 표문, 장계, 소, 誥, 서, 답, 발, 승전, 전, 별전, 전기, 열전, 사전,

연대력, 행장, 실록, 비, 고기, 고전, 고전기, 이전, 향기, 향전, 속전, 언전, 당전, 가지, 기, 본기, 본전, 별기, 고본, 一本, 흑본, 별본, 秘詞, 後記, 章, 사기, 사증기, 지리지, 문, 록, 일기, 명, 송, 찬, 시, 계, 가, 곡 등 58개의 문체명이 176회에 걸쳐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로서 당시 다양한 문체의 작품이 지어지고 통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2. <삼국유사>에 발견되는 한문 작품

<삼국유사>에는 당시 전하던 모든 자료를 인용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문체의 백과사전적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나 일 항목내의 설화가 연결된 설화가 아니라 때로는 설화의 부스러기를 나열한 것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학성을 논할 때는 그 자료가 한 작품으로 완결성을 구비하고 있는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여기서는 우선 일정한 문체를 선택한 모든 문장을 열거하기 보다는 유기체적 구조를 가지고 독자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수준으로까지 승화된 작품을 선별하여 제시하고, 이에 대한 문학적 연구는 지면관계상 차후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삼국유사 소재 한문 작품>

문체류 (인용횟수/작품수)	문체명	출처
산문 1. 논변류(49)	1) 史論曰	(권2 金湯大王)
	2) 義曰	(권2 仇衡王)
	3) 議者曰	(권1 奈勿王 金堤上)
	4) 議曰	(권5 郁面婢念佛西昇)
	5) 議曰	(권3 南白月二聖 努昝夫得 朴世朴朴)
	6) 議曰	(권3 洛山二大聖 觀音 正總 調信)
	7) 議曰	(권4 良志使錫)
	8) 議曰	(권3 阿道基羅)

24 우리 말글 (제16집)

문체류 (인용횟수/작품수)	문체명	출처
	9) 讓曰	(권4 인광서학)
2. 주소류(12/2)	1) 致書報云	(권2 문호왕 법민)
	2) 埃白寺柱貼	(권5 明郎神印)
3. 조령류(1/0)		
4. 서독류(4/4)	1) 寄書于太祖	(권2 後百濟 甄壹)
	2) 太祖答曰	(권2 後百濟 甄壹)
	3) 并奉書勸懇曰	(권4 義湘傳教)
	4) 湘仍寄書	(권4 勝詮禪叢)
5. 서발류		
5.1. 서문(0/1)	1) 敍曰	(권1 紀異)
5.2. 발문(1/2)	1) 有跋云	(권3 前後所將舍利)
	2) 삼국유사 발문	
6. 전장류		
6.1. 僧傳(36/7)	1) 僧傳之	(권3 高麗 靈塔寺)
	2) 法現西域傳	(권3 魚山佛影)
	3)	(권3 溟州 五臺山寶叱徒太子傳記)
	4) 唐撰高僧傳	(권4 圓光西學)
	5) 唐傳	(권4 圓光西學)
	6) 廣函求法高僧傳	(권4 歸竺諸師)
	7) 義湘傳	(권3 前後所將舍利)
6.2. 私傳(5/3)	1)	(권3 洛山二大聖 觀音 正趣 調信)
	2)	(권4 圓光西學)
	3)	(권5 金現感虎)
6.3. 列傳(6/2)	1) 又三國史列傳	(권4 圓光西學)
	2) 前漢朝鮮傳	(권1 魏滿朝鮮)

문체류 (인용횟수/작품수)	문체명	출처
7. 바지류(5/1)	1) 按我道本碑	(권3 阿道基羅)
8. 잡기류		
8.1. 역사(40/8)	1)	(권2 駕洛國記)
	2) 古記	(권3 魚山佛影)
	3) 古記	(권1 古朝鮮)
	4) 新羅別記	(권1 太宗春秋公)
	5) 新羅古記	(권1 太宗春秋公)
	6) 新羅本記	(권3 阿道基羅)
	7) 高麗古記	(권3 寶藏奉老 普德移庵)
	8) 新羅古傳	(권3 三所觀音 衆生寺)
8.2. 기(16/5)	1) 又海東名賢安弘撰東都成立記	(권3 皇龍寺九層塔)
	2) 白月山兩聖成道記	(권3 南白月二聖 努勝夫得 世世朴朴)
	3)	(권3 五臺山文殊寺石塔記)
	4)	(권4 關東楓岳鉢淵藏石記)
	5) 星函西域記	(권3 魚山佛影)
8.3. 寺志(14/5)	1) 按山中古傳	(권3 臺山五萬眞身)
	2) 按寺中所傳古記云	(권3 臺山月精寺 五類聖衆)
	3) 康州界任道大監柱貼	(권4 伯嚴寺石塔舍利)
	4) 寺中古記	(권3 靈鷲寺)
	5) 金光寺本記	(권5 明郎神印)
8.4. 문(2/2)	1) 隣香壇禮佛結社文	(3권 原宗興法 厭弱滅身 224)
	2) 新羅別記	(권1 태종 춘추공)
8.5. 록(3/2)	1)	(권3 전후소장사리)
	2) 三寶感通錄	(권3 遼東城 阿育王塔)
8.6. 일기류(1/0)		
9. 서사류		

문체류 (인용횟수/작품수)	문체명	출처
운문		
10. 예제류(0/0)		
11. 잠명류(1/1)	1) 銘曰	(권2 駕洛國記)
12. 송찬류		
12.1. 송류(1/1)	1) 其詞曰	(眞德王)
12.2. 찬류(2/47)	1) 按駕洛記贊	(五伽耶)
	2)	(包山二聖)
	3) 乃作詞誡之曰	(권3 洛山二大聖 觀音正趣 調信)
	4) 讚曰	(권4 圓光西學)
	5) 讚曰	(권4 良志 使錫)
	6) 讚曰	(권4 歸竺諸師)
	7) 讚曰	(권4 二惠同塵)
	8) 讚曰	(권4 慈藏定律)
	9) 讚曰	(권4 元曉不羈)
	10) 讚曰	(권4 義湘傳教)
	11) 讚曰	(권4 蛇龜不言)
	12) 讚曰	(권4 眞表傳簡)
	13) 讚曰	(권3 原宗興法 厭勝滅身)
	14) 讚曰	(권3 法王禁殺)
	15) 讚曰	(권3 寶藏奉老 普德移庵)
	16) 乃有讚曰	(권3 迦葉佛宴坐石)
	17) 讚曰	(권3 遼東城 阿育王塔)
	18) 讚曰	(권3 金官城婆娑石塔)
	19) 讚曰	(권3 皇龍寺 丈六)
	20) 讚曰	(권3 皇龍寺九層塔)
	21) 讚曰	(권3 四佛山 攝佛山 萬佛山)
	22) 有人眞讚云	(권3 前後所將舍利)
	23) 讚曰	(권3 彌勒仙花 未尸郎 眞慈師)
	24) 讚曰	(권4 心地繼祖)

문체류 (인용횟수/작품수)	문체명	출처
	25) 讚曰	(권4 賢瑜伽 海華嚴)
	26) 讚曰	(권5 密本刹邪)
	27) 讚曰	(권5 惠通降龍)
	28) 讚曰	(권5 仙桃聖母隨喜佛事)
	29) 讚曰	(권5 郁面婢念佛西昇)
	30) 讚曰	(권5 像興遇聖)
	31) 讚曰	(권5 眞身受供)
	32) 讚曰	(권5 月明師兜率歌)
	33) 讚曰	(권5 善律還生)
	34) 讚曰	(권5 金現感虎)
	35) 讚曰	(권5 朗智乘雲 普賢街)
	36) 讚曰	(권5 緣會逃名 文殊帖)
	37) 讚曰	(권5 惠現求靜)
	38) 讚曰	(권5 信忠掛冠)
	39) 讚曰	(권5 包山二聖)
	40) 讚曰	(권5 永才遇賊)
	41) 讚曰	(大誠孝二世父母神文代)
	42) 讚曰	(권1 天賜玉帶)
	43) 讚曰	(권3 順道鑿髓)
	44) 讚曰	(권3 阿道基羅)
	45) 讚曰	(권3 難陀鬪濟)
	46) 讚曰	(권3 南白月二聖 努於夫得 相相林林)
	47) 讚曰	(권3 芬皇寺千手大悲 盲兒得眼)
13. 시가류		
13.1. 시류(7/9)		
	1) 도경 嘗作贈內詩	(권5 김현감호)
	2) 도경妻 乃吟曰	(권5 김현감호)
	3) 曹溪無衣子留詩云	(권3 前後所將舍利)
	4) 漢南管記彭龍丞留詩云	(권3 前後所將舍利)
	5) 解曰	(권5 月明師兜率歌)
	6) 時人作詞曰	(권1 桃花女 鼻前郎)
	7) 詩曰	(眞聖女大王 居陀知)

문체류 (인용횟수/작품수)	문체명	출처
	8) 因投詞曰 因投一偈曰	(권3 南白月二聖 努粉夫得 世世林林)
	9)	(권5 良智乘雲 普賢樹)
13.2. 기류(43)	1) 時神作歌曰	(권4 心地藏神)
	2) 衆人嗔嘉歌詞曰	(권2 大路夫人)
	3) 歌之云	(권2 가락국기)
14. 사부류 (0/0)		

이상에서 보듯이 문체명이 인용되었으나, 실제 작품이 없는 경우(조령, 일기류), 문체명 인용 횟수보다 실제 작품이 많은 경우(논변, 서발, 찬류), 문체명 인용 횟수보다 실제 작품이 적은 경우(주소, 전장, 비지, 잡기류), 문체명은 없으나 작품이 있는 경우(序類)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리고 논변류 9, 주소류 2, 조령류 0, 서독류 4, 서발류 3, 전장류 12, 비지류 1, 잡기류 22, 애제류 0, 잠명류 1, 논찬류 47, 시가류 12, 사부류 0, 도합 114편의 한문작품이 수록되어 있다고 볼 때 <삼국유사>는 훌륭한 한문문학의 보고라고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다.

4. 결론

문선류에 나타난 문체는 58개 문체종에 약 87개 문체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한문은 14개 문체류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것은 구체적으로 산문 9종(논변류, 주소류, 조령류, 서독류, 서발류, 전장류, 비지류, 잡기류, 서사류), 운문 5종(잠명류, 송찬류, 시가류, 애제류, 사부류)이다.

<삼국유사>에 인용된 문체명은 논변류, 주소류, 조령류, 서독류, 서발류, 전장류(승전, 사전, 열전, 행장), 비지류, 잡기류(역사기술, 기, 사지, 문, 록, 일기), 잠명류, 송찬류, 시가류 등에서 58개 문체명이 176회 사용되었으나, 애제류와 사부류는 보이지 않았다.(서사류 제외)

<삼국유사>에 발견되는 한문 작품은 논변류, 주소류, 서독류, 서발류, 전장류, 비지류, 잡기류, 잠명류, 송찬류, 시가류 등으로 분류될 수 있는 114편의 작품이 보이나, 조령류, 애제류, 사부류에 해당하는 작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 문학적성이 있는 114편의 한문문장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고, 그 결과를 가지고 <삼국사기>의 한문문체와의 비교연구가 필요하리라고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 삼국유사(권상로 역, 동서문화사)
- 삼국유사(이가원 역, 태학사, 1998.)
- 서거정, 東文選
- 서사증, 文體明辨
- 소 통, 文選
- 오 늘, 文章辨體
- 요 내, 古文辭類纂
- 유 첩, 文心雕龍
- 고운기, 삼국유사의 일연 찬시에 대한 연구,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 고운기, 일연의 세계인식과 시문학연구, 연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 김승호, 한국승전문학연구, 민족사, 1993.
- 김용옥, 三國遺事引得, 통나무
- 김주환, 삼국유사 소재 찬에 대하여(삼국유사연구 상,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1982.)
- 민병수, 한국한문학개론, 태학사, 1996
- 백신숙, 일연의 찬시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 신동훈, 설화와 불심으로 민족사를 되살린 큰 작가(민족문화사연구소 편, 한국고전문학작가론, 소명, 1998.)

30 우리 말 글 (제16집)

- 안대회, 조선시대 문장관과 문장선집(김도련 편, 한국 고문의 이론과 전개, 태학사, 1997.)
- 이가원, 한문신강, 신구문화사, 1978.
- 이경선, 동문선(한국의 명저, 현암사, 1970.)
- 이남영, 삼국유사와 송 일연과의 관계 고찰(삼국유사연구논선집1, 백산자료원, 1986.)
- 이동환, 동문선의 선문방향과 그 의미(한국고전심포지움2, 일조각, 1985.)
- 이종건 · 이복규, 한국한문학개론, 보진재, 1991.
- 이종찬, 한문학개설, 이우출판사, 1989.
- 인권환, 일연론(한국문학작가론, 형설출판사, 1979.)
- 인권환, 고려시대불교사의 연구,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83.
- 정요일 · 박성규 · 이연세, 고전비평용어연구, 태학사, 1998.
- 최신호, 한문강화, 현암사, 1977.
- 허홍식, 동문선의 편찬동기와 사료가치(한국고전심포지움2, 일조각, 1985.)
- 황패강, 일연작품집, 형설출판사, 1977.